하나님께 밀착해 휘말리는 삶

(학개 2:1~23)

1.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밀착해 휘말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께 밀착해 휘말리는 삶'

밀착이라는 단어가 관계에 적용되면 서로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상호의존적인 상태가 되었음을 일컫습니다. 이 밀착관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기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어감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밀착은 일반적으로 어드히어런스(adherence)를 사용합니다만 '헤어나기 힘든 곤경에 휘말리게 하다'라는 의미의 인매시먼트(enmeshmen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밀착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이가 좋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서로에게 얽매여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착관계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영향을 받아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밀착관계는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과민반응에 가깝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밀착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서로의 인격이 독자적으로 구분하고 분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자녀 관계를 예로 들어봅니다. 사람의 인격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밀착된다면 자녀의

인격 성장을 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의 인간관계에 간섭합니다. 혹은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지면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부모는 이러한 행동에 사랑이라는 당위성을 붙이지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마음이 밀착하게 되면 정책의 실효성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밀착으로 인해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밀착관계를 상당히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이 밀착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밀착관계를 극단적으로 추구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얽매이고 휘말려서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는 자취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밀착관계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의 밀착관계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인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밀착관계를 유지하심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 얽매이고 휘말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일체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도 독자적 생각을 가지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밀착관계를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에 휘말리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밀착관계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밀착에 대한 문제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는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재개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재건 작업을 하던 선민들

사이에서 성전이 초라하다는 불평이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던 시기는 다윗의 전성기를 기반으로 물자가 풍부하여 은이 길거리의 돌처럼 흔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전은 그 크기와 화려함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되는 성전은 그 시절에 비해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미신적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도 나라가 망했는데, 이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접한 학개 선지자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선민들은 성전의 존재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는 있었지만 본래 성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소 의미가 불분명한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희와 언약한 말에 따라서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곧 하나님과 선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선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과정과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언급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도 먼저 언약을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해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반응을 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곧 선민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함께하겠음을 고백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의 크고 화려함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본래 존재 의미는 선민들이 하나님과의 밀착관계를 활성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와 같은 곳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6~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전을 생활화해서 하나님과 밀착할 수만 있다면 비록 성전의 규모가 작을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족이나 사업과 같은 다른 대상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밀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배우자와 마음으로 밀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밀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일과 밀착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밀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마음으로는 밀착된 세상일들이 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착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전의 방식을 통해 세상과의 밀착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2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고기를 감싼 옷자락은 고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고기를 치운다면 옷자락 또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전이 바로 이 옷자락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주술적으로 생각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성전 건물을 세움으로써 온 나라가 거룩함의 영향력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옷자락이 고기와 밀착되어 감싸듯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과 밀착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연관성을 가진 비유가 13절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시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몸을 통하여 이루실 뜻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일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끊어지게 되면 시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남았다면 설령 암에 걸렸더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없다면 어제까지 건강했더라도 오늘 죽을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느냐 없느냐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하신 뜻이 없는 일을 땅에서 자의적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휘말려들지 않는 삶을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면서 가족이나 사업에 대해 하나님과 구분된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는 삶은 시체를 주무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16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러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곡식 이십 가마니를 추수하리라 생각했지만 열 가마 밖에 나오지 않고, 포도주 오십 통이 나오기를 계획했지만 이십 통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꾸고 소원했지만 그대로 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의 초라함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시체를 주무르듯 살아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고 이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존재하지 않기에 죄입니다. 사업과 마음이 밀착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것은 시체를 주무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밀착하고 접촉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조차도 마음과 밀착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몸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만나는 세상과 밀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휘말려 들어간 상태는 하나님과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과 밀착되어 있다면 사업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고, 사업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는 분리되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시게 됩니다. 몸으로 만나는 것들에 마음이 밀착되어 있다면 살아있어도 시체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없는 일들을 벌이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존재 의미를 완성시키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함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 밀착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할 때에 마음은 세상과 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밀착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휘말리셨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사업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의 밀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든 이왕 시작한 사업이든 사업에 밀착되었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휘말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유는 배우자와 마음이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

지로 자녀에게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자녀와 마음이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밀착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밀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의지와 느낌에 휘말려서 사는 선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착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기억해야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시켜야 하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휘말린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내가 세상을 대하는 유일한 현실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밀착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손발 끝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휘말려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